손흥민, 원샷 원골… BBC "이것이 월드클래스"

아스널전 전반 13분 10호골…득점 1위 캘버트루인 1골차 추격
팀 3번째 5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현지 언론, 결정력 극찬

손흥민(28·토트넘)이 또 예술적인 골 장면을 그려내며 눈을 홀렸다.

손흥민은 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0-2021 프리미어리그(EPL) 11라운드 홈 경기 선발 출전해 전반 13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넣어 토트넘의 2-0 승리에 앞장섰다.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EPL 10호 골을 기록, 득점 랭킹 1위인 도미닉 캘버트루인(11골·에버턴)을 1골 차로 추격했다.

손흥민은 또 EPL 출범 뒤 토트넘 선수로는 로비 킨, 케인에 이어 3번째로 다섯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 13골 6도움(EPL 10골 3도움·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3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 덕에 지역 라이벌을 완파한 토트넘은 승점 24(골득실+14)를 기록해 첼시(승점 22)를 제치고 하루 만에 EPL 선두를 탈환했다.

리버풀(골득실 +9)도 이날 울버햄프턴에 승리 승점 24점을 쌓았지만 토트넘이 골득실에서 크게 앞서 선두에 자리했다.

토트넘은 개막전 패배 뒤 10경기 무패(7승3무)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해리 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아 왼쪽을 파고들던 손흥민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반대편 골대를 향해 과감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을 날렸다.

아스널 골키퍼 베른트 레노가 왼쪽으로 몸을 날렸지만, 슈팅은 그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휘어 들어갔다.

이는 이날 손흥민이 기록한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다.

페널티아크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예리하게 감아차 반대편 골대를 노리는 슈팅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시절부터 손흥민의 최고 무기였다.

손흥민은 가장 손에 익은 무기를 아름답게 휘둘러 시즌 리그 10호골을 뽑아냈다.

손흥민의 최고 강점인 '결정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이 골 장면을 두고 현지 언론도 찬사를 보냈다.

영국 방송 BBC 인터넷판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끝내주는 마무리를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BBC는 또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손흥민이 골문으로 전진하자 터치라인을 따라 달려가며 위기감을 드러냈으나, 결국 알면서도 당했다"고 골 상황을 설명하며 손흥민의 결정력과 하위권으로 처진 아스널의 처지를 대비시켰다.

BBC 라디오 해설위원 클린턴 모리슨은 손흥민의 골이 터지자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다. 위대한 골이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스카이스포츠 역시 "손흥민이 토트넘의 기분 좋은 선제골을 감아 찼다"고 호평했다.

토트넘 구단은 트위터에 손흥민의 골 장면을 게시하며 "이 골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결정적 한 방으로 토트넘을 북런던 더비 승리로 이끈 손흥민은 평점도 후하게 받았다.

BBC는 손흥민에게 케인(8.44) 다음으로 높은 8.43의 평점을 부여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8.1점을 매겼다. 케인은 7.9점으로 2위였다.

손흥민은 EPL 사무국이 온라인 팬 투표로 선정하는 '킹 오브 더 매치(KOM)'로도 뽑혔다.

손흥민은 66.0%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여 2위인 케인(28.2%)을 크게 앞섰다. /연합뉴스

"환상의 골 봤지?"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7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홈경기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전반 13분 선제 결승골을 터트린 뒤 양팔을 치켜들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선수협, 신임 회장에 양의지

체육시민단체 "선수협 판공비 배임죄로 고발 할 것"

'판공비' 논란에 휩싸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양의지(NC 다이노스)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7일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10개 구단 선수 대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양의지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양의지는 모바일로 진행된 선수 투표에서 456표 중 가장 많은 103표를 얻었다. 투표는 각 구단 고액 연봉 선수 3명씩 총 30명을 후보로 놓고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양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 되었다. 선수협회 내부에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 야구팬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책임감을 갖고 선수협회가 투명하고, 선수들을 위한 단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잘못된 정관 혹은 선수협 내부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규정을 바르게 잡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선수협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 받아 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판공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에는 '임원 무보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판공비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도 없다"며 "이 전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지급 받았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수협은 이번 고발조치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광주·전남북 초·중 야구부에 3천만원 야구용품

KIA 타이거즈가 지역 초·중학교 야구부에 3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원했다.

KIA는 최근 광주·전남·전북 지역 11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야구팀에 경기용 공 3박스를 각각 전달했다.

KIA는 매년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중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 팀에게 경기용 공 등 야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여파로 대회가 열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 KIA는 연고지역 초중등학교에 용품만 전달했다.

KIA 관계자는 "지역 야구 꿈나무들이 기량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용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

'뒷심'에 밀린 박인비

LPGA VOA 클래식 스탠퍼드에 2타차 준우승 … 상금랭킹 1위 탈환

박인비(32·사진)가 통산 21승 고지에 한 걸음이 모자랐다. 그러나 7주 동안 필드를 비웠던 박인비는 우승 경쟁 끝에 2타차 준우승을 차지해 건재를 과시했다.

박인비는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더콜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에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적어내 엔젤라 스탠퍼드(미국)에 2타 뒤진 2위(5언더파 279타)에 올랐다.

박인비는 시즌 두 번째 우승이자 통산 21승은 무산됐다.

하지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7주 동안 경기를 쉬었던 박인비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을 앞두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수확을 했다.

준우승 상금 12만709달러를 받은 박인비는 김세영(27)에게 내줬던 상금랭킹 1위(118만7229 달러)를 탈환했다. 김세영은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김세영이 가져간 올해의 선수 포인트 1위는 되찾지 못했지만, 격차는 좁혔다.

US여자오픈은 더콜로니에서 400㎞ 떨어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다.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박인비는 1번 홀(파4) 보기로 불안했지만, 4번(파4), 6번 홀(파5) 징검다리 버디로 다시 공동 선두에 복귀했다.

9번 홀까지 버디 2개를 잡은 고진영(25), 8번 홀까지 2타를 줄인 스탠퍼드와 본격적인 우승 경쟁에 나선 박인비는 그러나 12번 홀(파4) 보기가 뼈아팠다.

두 번째 샷이 바람에 밀려 그린을 벗어났고 세 번째 샷은 핀을 한참 지나쳤다.

13번(파5), 14번 홀(파4) 연속 버디로 2타차 선두로 치고 나간 스탠퍼드는 16번 홀(파3), 17번 홀(파5) 연속 버디로 승부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3타차로 달아난 스탠퍼드는 18번 홀(파4) 보기를 하고도 그린 옆에서 기다리던 부모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환호했다.

버디 7개를 잡아내고 보기 3개를 곁들이며 4타를 줄인 스탠퍼드의 최종 스코어는 7언더파 277타.

지난달 43번째 생일을 지낸 스탠퍼드는 2018년 에비앙 챔피언십 이후 2년 동안 이어진 우승 갈증을 역전승으로 씻어내고 통산 7승째를 올렸다.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던 고진영은 버디 3개와 더블보기 1개로 1타를 줄인 끝에 5위(4언더파 280타)에 올랐다.

박인비와 함께 공동 선두로 4라운드에 나선 유소연(30)은 1언더파 70타를 쳐 박인비와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역시 공동 선두로 출발한 재미교포 노예림(19)도 1타를 줄여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